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번역을 중심으로-

권오숙*

〈차례〉

1. 들어가는 글
2. 언어, 번역, 그리고 젠더
3. 『오셀로』 번역 텍스트들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번역의 차이
4. 나가는 글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가득 담겨있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Othello*)를 중심으로 번역자의 젠더가 어떻게 서로 다른 해석과 번역을 낳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남성 번역가들의 번역과 세 명의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을 중심으로 주로 성담론이 담긴 대사들의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 번역가와 남성 번역가의 문체를 비교하여 번역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 호칭 표현 등의 차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번역가의 성정체성과 번역 결과물 사이에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가부장적이든 여성주의적이든 성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된 번역은 다양한 문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지나친 가부장적 번역은 자칫 독자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성(性)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 한국외국어대학교

왜곡시킬 수 있고 또 너무 적극적인 여성주의 번역도 원전의 의도나 문맥의 의미에서 벗어난 번역을 낳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번역가는 원전의 의도나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수용가능한 번역을 가능한 객관적 입장에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젠더와 번역, 번역가의 정체성, 페미니스트 번역, 이데올로기와 번역, 여성 언어

1. 들어가는 글

그동안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장 피아제(Jean Piaget)는 사고가 언어를 우선하고 지배한다는 인지 심리학을 주장했다. 반면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와 벤자민 워프(Benjamin Whorf)는 언어구조가 사람의 심리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언어 상대성 이론(linguistic relativity) 혹은 사피어-워프 가설(The Sapir-Whorf Hypothesis)을 주장했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인간의 언어지식은 상당 부분 생득적으로 언어진다는 언어보편성 이론을 통해 이런 언어적 결정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문법구조나 문법규칙을 지닌 경우들을 볼 때 언어가 사고나 문화를 결정한다는 이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주장들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언어와 사고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언어구조와 심리구조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심리구조는 언어에도 반영된다. “조만간에 (sooner or later)”, “여기저기(here and there)”, “이리저리(to and fro)”, “이것저것(this and that)”처럼 시간과 공간,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한 쌍의 단어에서 화자 중심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도 그 일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언어에 작용하는 화자 중심적 원리는 번역 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번역에는 ‘해석’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 해석 과정에서 번역가의 정체성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입될 수밖에 없다. 최근 수 십 년간 젠더와 번역 활동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셰리 사이몬(Sherry Simon)은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엘렌 식수스(Helene Cixous)같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글이 미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용들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과 젠더의 역학 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엘리자베스 스탠튼(Elizabeth Cady Stanton) 등은 주로 영어 성경의 가부장적 왜곡 번역 문제를 분석했다. 그 외에도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과 같은 여성 운동가들도 젠더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번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런 몇 십 년간의 노력으로 그동안 신성시되어 온 번역 정전들에 담겨있는 성차별적 요소가 속속 밝혀졌으며 번역과 젠더의 역학 관계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명되었고 이런 정전들에 대한 수정 혹은 재작업에 대한 요구와 실천도 있어왔다.

본고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가득 담겨있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Othello*)를 중심으로 번역자의 젠더가 어떻게 서로 다른 해석과 번역을 낳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번역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주로 성담론을 중심으로 여성 번역가와 남성 번역가의 문체를 비교하여 번역자의 성별에 따른 어휘, 호칭 표현 등의 차이에 대해 집중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비평은 자료체가 될 만한 구체적 번역 작품을 여러 권 검토함으로써 체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남성 번역가들의 번역과 세 명의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번역가의 성정체성과 번역 결과물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성적 편견에 사로잡힌 번역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올바른 번역 태도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도 논할 것이다.

2. 언어, 번역 그리고 젠더

언어학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차이는 지역에 따른 언어변이나 사회 계급에 따른 언어변이 만큼 현저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과 남성의 문체 차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대두되었다. 애네트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1975, 75) 미라 켈렌(Myra Jehlen)은 이런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981, 64). 로빈 레이코프(Robin Lakoff)는 여성이 남성보다 문법을 더 잘 따른다고 주장했다(1975, 120). 제니 체셔(Jenny Cheshire)도 남녀간의 문법 준수 정도 조사 실험을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표준 문법을 더 자주 쓰고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문법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표준문법을 더 지키려한다고 주장했다(1982, 113). 이렇듯 대체로 여성 언어가 남성언어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나 표준발음에 더 민감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확하고 품위있는 말을 선호한다. 또한 여성들은 저주, 성과 관련된 금기어, 죽음이나 배설에 관련된 금기어 등을 완곡어법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성은 ‘damn, shit’ 같은 욕설과 관련된 감탄사를 빈번히 사용하고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데보라 태넨(Deborah Tannen)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방언을 사용하며 남녀는 언어와 사고 면에서도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려하는 반면, 계급 구조에 익숙한 남성은 대화를 통해 독립을 획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1991, 56). 메조리 하니스 구드윈(Majorie Harness Goodwin)도 실험을 통해 소녀들이 ‘can’이나 ‘could’ 등을 사용하여 명령형보다는 제안형을 많이 사용하고

‘maybe’와 같은 어구를 사용하여 대화를 부드럽게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년들은 명령형이나 직접 지시형을 소녀들보다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소녀들의 경우 계층이나 엄격한 서열 구조보다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소년들은 서열과 계층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980, 34)¹⁾.

번역은 전통적으로 원문 텍스트(source text)에서 수용 텍스트(target text)로 의미를 전달하는 대단히 몰개성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번역가들의 의견이나 편견 등이 작용하면 오히려 원전을 왜곡하고 파괴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텍스트들 간의 의미론적 등가성을 성취하기 위해 순수하게 언어학적이고 왜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번역이라 여겨졌다. 또한 번역가들은 늘 원문 텍스트의 엄밀한 의미에서 부적절하거나 의도적인 일탈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의 번역 이론들은 해석과정에서 번역가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해왔다. 시대별로 새로 태어나는 다양한 번역은 순수한 원천 텍스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 새 생명의 피를 주입하여 생존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번역 과정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장르, 대상 독자, 번역가가 처한 문화적 환경, 출판사의 정책과 선호도, 번역가의 (성별/사회적) 정체성, 번역가의 개인적 스타일 및 번역 전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번역 결과물이 생산된다. 거기다가 바흐친과 볼로쉬노프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언어를 보았는데 이들에 의하면 언어는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창조성에 불가결한 성분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모든 이데올로기 활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부르디외에 의하면 모든 언어 교환은 권력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모든 화자들은 자신의 언어행위가 가져올 이익을 예측함으로써 상징적 권력 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1) 이상 여성어의 특질에 대한 내용은 김동미, 『영한 번역의 ‘여성 문체’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24쪽을 참고하였음.

최근 수많은 여성 번역가들이 원천 텍스트에 내포된 성차별적 의미를 바로잡고 전통적인 남성 언어의 권위를 심문하고, 해체하려는 시도와 함께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중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사이먼은 여성 번역가들이 가부장적 남성 언어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다(63). 그는 여성 번역가의 번역은 가부장적 언어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텍스트에 들어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112). 루이스 폰 플로투우(Luise Von Flotow)는 여성의 번역 방식에는 여권 신장과 여성의 권리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번역가가 원문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번역하는 간섭주의적 페미니스트 입장(interventionist Feminist), 기존의 학교, 대학, 출판사, 대중 매체, 사전, 문학 대작 등에서 사용된 전통 언어를 침식하고 뒤집는 실험적 페미니스트 (experimental Feminist) 입장이 있다고 주장했다(12). 나아가 플로투우는 여성번역가들은 이러한 문제로 번역함으로써 가부장적 언어에 대항하며 그 권위를 해체하고자 한다고도 주장했다. 본고는 실제 남녀 번역가의 번역본들을 통해 그런 주장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오셀로』 번역 텍스트들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번역의 차이

서구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라는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 번역은 국내에서 그동안 권위가 있는 남성 학자들만이 생산과 전유를 맡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번역은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내재된 가부장적 요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 셰익스피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백여 년이 흘렀지만 여성 번역가의 번역 참여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윤정은 교수 등이 전집 구성에 한 두 편 참여하는 정도였다. 셰익스피어 분야에서 여성 번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80년대에 신정옥 교수가 전예원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한 것을 시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신정옥 교수가 현대 드라마 분야에서 수많은 작품을 번역하여 번역가로서의 권위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셰익스피어 분야에서도 여성 번역가들의 작품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본고에서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작품 중 『오셀로』를 선택한 것은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희극적 요소나 환상적, 초자연적 요소,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무질서와 같은 장대한 스케일이 거의 배제된 채 의치증에 걸린 주인공과 그 의치증을 부추기는 이아고가 주고받는 온갖 성담론으로 가득찬 가정비극이기 때문이다. 남녀 등장인물들이 주고 받는 성적 담론들을 중심으로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번역에 담겨있는 무의식적 성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들은 남성 번역가 편 3권, 여섯 번역가 편 3권으로 총 6권이다. 시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1980년대 말에서 최근까지 번역된 비교적 최신 번역서들을 선택했다.

우선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호칭에서 완전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호칭 번역은 국내 번역에서 종종 오류를 낳는 부분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영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번역가들이 우리 문화와 정서에 알맞은 번역을 놓치곤 한다. 남성번역가들은 데스테모나가 상사인 오셀로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를 그냥 데스테모나라고 번역하였다. 반면 여성 번역가들은 데스테모나에 대한 호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데스테모나 부인, 혹은 데스테모나 님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아래 대사는 오셀로의 부관 캐시오가 막 결혼한 데스테모나가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빨리 도착한 것이 폭풍우와 같은 미물들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각한 탓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칭송하는 장면이다.

Cassio: As having sense of beauty do omit
Their mortal natures, letting go safely by
The divine Desdemona.(II, I, 71-73)

남성 A

캐시오: 아름다움을 아는 듯이
죽음을 부르는 본성을 버리고
신성한 **데즈데모나**를 통과시켰습니다.

남성 B

캐시오: 아름다운 것을 알아봤는지 참혹한 본성을 숨기고, 천사와 같은
데즈데모나를 무사히 통과시켜 주었군.

남성 c

캐시오: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감각을 지녔는지, 죽음을 부르는
그들의 무서운 본성을 버리고, 천사같은 **데즈디모우나**를
무사히 보내준 모양이군요.

여성 A

캐시오: 죄없는 배를 해치려는 바다 속에 잠복한 반역자들도
미적 감각을 지니는 것처럼 그 난폭한 성품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보내주었군요.
그 고귀한 **데즈데모나 부인**을 말입니다.

여성 B

캐시오: 아름다운 것을 식별하는 감각을 지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천사같은 **데즈데모나**님을

무사통과시켰군요.

여성 C

캐시오: 아름다움 앞에선 맥을 못 추는지 죽음의 본성을 내버리고 천사와 같은 **데스테모나**를 무사히 통과시켰구나.

이때 남성 번역가들은 전원이 그냥 데스테모나라고 번역한 반면 여성 번역가 중에서는 C만이 그냥 ‘데스테모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번역을 하였다. 우리나라 언어처럼 호칭이나 존댓말이 분화되지 않은 영어 텍스트에서는 그냥 Desdemona일지라도 상관의 부인 이름을 아무런 경칭을 붙이지 않고 호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 규범에 어긋난 잘못된 번역임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의 문화 규범으로는 이를 ‘장군의 부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살펴볼 호칭은 데스테모나가 남편 오셀로에게 사용하는 ‘my lord’의 번역이다 이 ‘lord’라는 단어는 하나님, 군주님, 주인님 등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나 아내가 남편을 일컬어 쓰기도 하는 표현이다. 보통 지배 종속 관계에서 종속적 입장의 인물이 지배적 입장의 사람을 호칭할 때 쓰던 이 단어를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일컫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부 관계를 상하 종속 관계로 파악하고 그런 권력 관계를 고착화시킨 전형적인 가부장 언어라고 볼 수 있다.²⁾

2) 셰익스피어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지배종속적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의 서극에 나오는 다음 장면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Sly: Where is my wife?

Bartholomew: Here, noble lord, what is thy will with her?

Sly: Are you my wife, and will not call me ‘husband’?

My men should call me ‘lord’; I am your goodman.

Bartholomew: My husband and my lord, my lord and husband,

I am your wife in all obedience.(Induction 2, 97-103)

ST

Desdemona: How now, my lord?(III.iii.41)

남성 A

데스테모나: 무슨 일이세요, **주인님**.

남성 B

데스테모나: **당신**이군요.

남성 C

데즈디모우나: 어머, **당신**이군요.

여성 A

데스테모나: 무슨 일이세요, **장군**.

여성 B

데스테모나: 어서 오세요, **남군님**.

여성 C

데스테모나: **당신**이군요.

슬라이: 내 부인은 어디 있소?

바톨로뮤: 여기 있습니다, 나리. 무얼 바라시옵니까?

슬라이: 그대가 내 부인이요? 그런데 왜 날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않소.

내 신하들은 나를 ‘나리’라고 불러야 하나, 난 부인의 지아비잖소.

바톨로뮤: 당신은 저의 지아비이자 나리이시요, 나리이자 지아비이십니다..

전 당신의 순종적인 아내입니다.

이런 대사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이 단어 속에 담긴 가부장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A는 이 호칭을 ‘주인님’이라고 번역해서 부부 관계를 지배종속 관계로 파악하는 이 어휘를 직역하고 있다. 이는 원전에 담겨있는 가부장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번역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번역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너무 수용하기 어려운 번역이라는 것이다. 반면 그 외의 번역가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부부간의 호칭으로 수용하여 ‘당신’, ‘남군님’ 등으로 번역을 하여 단어에 내재된 가부장적 의미를 시대에 맞게 희석시켜 현대 독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있다.³⁾ 그런데 여성 A는 이 단어를 ‘장군님’도 아닌 ‘장군’이라고 직책을 언급하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데스테모나와 오셀로의 관계를 한층 동등한 입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lord라는 단어는 이 장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오셀로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간 뒤 에밀리어가 데스테모나와 나누는 대사이다. 이 부분의 번역에서도 ‘lord’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녀 번역가의 성정치성을 엿볼 수 있다.

ST

Emilia: Good madam, what's the matter with my lord?

Desdemona: With who?

Emilia: Why, with my lord, madam.

Desdemona: Who is thy lord?

Emilia: He that is yours, sweet lady.

Desdemona: I have none. (IV. ii. 97-101)

남성 A

3)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은 『번역, 권력, 정복』의 서문에서 “번역의 목표는 원천텍스트를 가다듬고 조작하여 목표 텍스트를 특정한 모델에 합당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올바른 개념을 생산하여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심지어 환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바 있다(알바레즈 & 비달 12에서 재인용).

이밀리아: 마나님, 주인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데스테모나: 누구에게?

이밀리아: 주인님요, 마나님.

데스테모나: 누가 너의 주인인데?

이밀리아: **마나님의 주인**이요.

데스테모나: 나는 주인이 없어.

남성 B

이밀리어: 아씨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주인님이?

데스테모나: 누가?

이밀리어: 주인님 말예요, 아씨.

데스테모나: 주인님이라구, 누구?

이밀리어: **아씨의 주인님** 말예요, 아씨두 참.

데스테모나: 내게는 주인님은 없어.

남성 C:

에밀리아: 마님, 주인 어른께선 어떻게 되신 겁니까?

데즈디모우나: 누구 말인가?

에밀리아: 어마, 주인 어른 말씀예요, 마님.

데즈디모우나: 그대 주인 어른이 누구지?

에밀리아: **아씨의 주인 어른** 말씀예요, 아씨.

데즈디모우나: 나한테 그런 분이 있었던가.

여성 A

에밀리아: 아씨, 우리 주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데스테모나: 누구에게?

에밀리아: 아니, 우리 주인님 말씀입니다, 아씨.

데스테모나: 누구 주인?

에밀리아: **아씨의 주인님 되시는 분** 말입니다. 아씨.

데스테모나: 나한테 주인은 없어.

여성 B

에밀리아: 마님. 장군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데스테모나: 누구하고?

에밀리아: 누구긴요. 주인님하고 말이예요, 마님.

데스테모나: 주인님이 누군데?

에밀리아: **마님의 서방님요**.

데스테모나: 내게는 주인이 없어.

여성 C

에밀리어: 아씨마님, 주인나리께서 왜 그러실까요?

데스테모나: 누구 말야?

에밀리어: 주인나리 말씀예요.

데스테모나: 주인나리라니?

에밀리어: **아씨마님의 바깥어른** 말씀예요.

데스테모나: 내게 그런 사람은 없어.

여기서는 남성 번역가들은 모두 lord를 “주인”이라고 번역하였다. 반면 여성 B와 C는 에밀리어가 사용한 my lord는 “주인님”이라고 번역을 한 데 반해 yours(your lord)는 “마님의 서방님”, “아씨 마님의 바깥어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부부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번역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밀리어와 오셀로는 분명 상하 종속 관계인 것을 인정하나 두 부부의 관계는 종속 관계로 보지 않으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때 여성B의 번역에서 재미있는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 B는 의도적으로 ‘lord’를 데스테모나의 ‘주인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피하고자 ‘마님의 서방님 말이예요’라고 번역했으나 그 다음 데스테모나의 대

사에서 ‘내게는 주인님은 없어’라고 번역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드는 오역을 범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인 비앵커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이아고가 오셀로의 의처증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캐시오에게 테스테모나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테니 그의 행동을 숨어서 지켜보라고 오셀로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이아고는 오셀로가 몸을 숨긴 뒤 다음과 같은 혼잣말을 하여 자신이 사실은 테스테모나가 아니라 캐시오의 연인인 창부 비앵커에 대해 물어볼 것임을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이 대목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과 관련된 번역 표현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ST

Iago: Now will I question Cassio of Bianca,
A house wife that by selling her desires
Buys herself bread and clothes.(IV.i. 91-3)

남성 A

이아고: 이제 캐시오에게 물어볼거야.
몸을 팔아서 빵과 옷을 사는
화냥년 비앵카에 대해서.

남성 B

이아고: 그러면 캐시오에게 그 비앵카, **색을 팔아서 의식의 길을 마련하는 매음부** 이야기를 물어보자.

남성 C

이아고: 자 이젠 캐시오에게 비앵카 애길 물어 봐야지.
몸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는

아낀이지.

여성 A

이아고: 저, 카시오 녀석한테 비앙카에 대해 물어봐야지.

그 계집 말이야. **정욕을 팔아 먹고사는 여자지.**

여성B

이아고: 이제 캐시오에게 비앵카 얘기를 물어봐야지.

욕망을 팔아서 빵과 옷을 사는 그 여자는

캐시오에게 훌쩍 빠져 있겠다.

여성 C

이아고: 됐어, 캐시오한테 비앵커 애길 물어야겠다.

몸을 팔아서 먹고 입고 하는 창녀겠다,

원전에서 셰익스피어는 ‘whore’나, ‘strumpet’ 같은 단어 대신 ‘A housewife that by selling her desire, /Buys herself bread and clothes’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여성 번역가 A, B와 남성 번역가 C는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창부’, ‘매춘부’ 등의 단어를 지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남성 A는 ‘화냥년’이란 원전보다 훨씬 속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고 남성 B는 ‘매음부’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 C도 ‘창녀’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역시 비유적으로 여성 번역가들이 공창을 뜻하는 어휘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cuckold’라는 영단어의 번역이다. 원래 ‘cuckold’라는 영어 단어는 ‘아내가 바람피워 남편에게 망신을 주다’, 혹은 ‘부정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이다. 아래는 이아고의 모략으로 데스테모나의 부정을 확신하게 되는 오셀로가 하는 대사이다.

Othello: I will chop her into messes. Cuckold me!
(IV.i.188)

남성 A

오셀로: 이년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어. **화냥질을 하다니!**

남성 B

오셀로: 그년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어.**간통을 하다니!**

남성 C

오셀로: 이년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말테다. **날 오쟁이진 사내로 만들다니!**

여성 A

오셀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 년... **날 배신해!**

여성 B

오셀로: 내 이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감히 서방질을 해!

여성 C

오셀로: 그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간통을 하다니!**

cuckold를 남성 A는 '화냥질'이란 훨씬 비하적인 표현으로 번역함으로써 원전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성 A는 단순히 '날 배신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인 방종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번역가들은 대체로 원전의 어휘와 강도나 뉘앙스가 비슷한 번역을 하고 있다. 이런 번역에서도 여성의 성적 방종과 관련된 표현을 둘러싼 남녀의 편차를 느낄 수 있다.

다음 오셀로의 대사 번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데스테모

나의 부정을 확신하게 된 오셀로는 그녀를 ‘whore’나 ‘public commoner’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비난한다.

ST

Othello: Was this fair paper, this most goodly book,
 Made to write “whore” upon? What committed!
 Committed? O thou public commoner!(IV, ii. 70-2)

남성 A

오셀로: 이 얼굴이 아름다운 종이인가?
 이 얼굴이 정교한 책인가. 그 위에 **창녀**라는 글씨가 적힌?
 무엇을 했냐고! 했잖아! **모든 사람의 갈보야!**

남성 B

오셀로: 이 결백한 종이는, 이 아름다운 책은 이 위에도 ‘**매음부**’라고 씌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고? 어떤 죄를 범했느냐고? 범했지! 예잇, **이 창부야!**

남성 C

오셀로: 오 이 새하얀 종이는, 이 더없이 훌륭한 책자는,
 그 위에 **갈보**라고 쓰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니! 지었다고? 오 **이 천하의 갈보 같으니!**

여성 A

오셀로: 이 깨끗한 종이, 이 더할 나위 없는 근사한 책이
 그 위에 ‘**창부**’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졌단 말인가?
 뭐라, 죄를 지어? 죄를 지었지! **이 지지리도 천박한 계집!**

여성 B

오셀로: 이 깨끗한 종이, 이 지극히 예쁜 책이

<창부>라고 적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무슨 죄! **온갖 잡놈들의 창부같은!**

여성 C

오셀로: 이 순백의 종이, 이 아름다운 책은 여기다 ‘매음’이라고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범했구말구! **천하의 매춘부!**

‘whore’라는 단어는 ‘창녀’, ‘매음부’, ‘갈보’, ‘창부’, ‘매음’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남성 C가 갈보라는 가장 속된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남성 번역가들은 ‘창녀’, ‘매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반면 여성 번역가들 중 두 명은 이보다 좀더 점잖은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창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public commoner’라는 단어도 남성 A와 C는 ‘갈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여성 A는 ‘이 지지리도 천박한 계집’이라고 번역하여 다시 공창의 의미를 제거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여성 B와 C가 선택한 어휘도 갈보라는 표현보다는 비하의 정도가 덜한 ‘창부’, ‘매춘부’였다.

극의 후반부에 베니스에서 공작의 사절인 로도비코가 도착한다. 로도비코는 데스테모나의 친척 오라버니뻘 되는 사람으로 캐시오를 후임으로 하고 오셀로는 귀국하라는 소환장을 갖고 왔다. 이때 오셀로의 심중을 모르는 데스테모나가 로도비코에게 자기가 아끼는 캐시오와 장군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캐시오를 후임으로 한다는 공작의 처사에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다. 이에 화가 난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꺼지라고 소리치자 데스테모나는 순순히 자리를 뜨려 한다. 그 다음 장면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Lodovico: Truly, an obedient lady.

I do beseech your lordship, call her back.

Othello: Mistress!

Desdemona: My Lord?(IV.i.238-41)

남성 A

로도비코: 진짜 순종적인 여성이네.

돌아오라고 부르게.

오셀로: **창녀야!**

데즈테모나: **주인님?**

남성 B:

로도비코: 얼마나 온순한 부인입니까, 장군, 다시 부르시오.

오셀로: **이거 봐!**

데즈테모나: **네?**

남성 C

로도비코: 참으로 고분고분한 부인이 아니신가.

제발 부탁이오, 장군. 부인을 다시 부르시오.

오셀로: **이봐!**

데즈디모우나: **네, 여보?**

여성 A

로도비코: 정말이지. 순종적인 여인이오.

제발 장군, 다시 부르시오.

오셀로: **부인!**

데즈테모나: **네, 장군?**

여성 B

로도비코: 참으로 고분고분한 여자군.

장군님, 부디 부인을 다시 부르세요.

오셀로: **부인!**

데스테모나: **네, 여보?**

여성 C

로도비코: 참으로 온순한 부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청하겠으니, 돌아오도록 하시오.

오델로: **부인!**

데스테모나: **여보.**

mistress란 단어는 단순히 결혼한 기혼여성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기혼남의 정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셀로는 로도비코가 그녀를 다시 부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냉랭하게 남의 부인 부르듯이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남성 A는 ‘창녀야’라고 번역하고 남성 B와 C는 ‘이봐!’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원전의 의도에서 벗어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여성 A, B, C는 모두 ‘부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이 단어를 다른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양상으로 견주어 볼 때 여성 번역가들의 번역이 올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어휘 하나를 놓고도 성별에 따른 번역의 낙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셰익스피어는 주로 이 단어를 기혼 여성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저의 즐거운 아내들』(*The Merry Wives of Windsor*)에서 폴스테프(Falstaff)가 유혹하는 여자들은 포드 부인(Mistress Ford), 페이지 부인(Mistress Page)들인데 이 두 여성들은 방탕한 기사 폴스테프의 유혹에 맞서 오히려 그를 골탕 먹이는 정숙한 아내들이다.

번역은 여러 이론적인 충돌과 실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변모하는 복잡한 다시 쓰기의 과정이다. 이 다시 쓰기에서는 텍스트 자체뿐만 언어의 개념도 함께 변모한다. 따라서 번역이 수용되는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은 번역의 역사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번역이 될 것이다. 여성의 위상이 셰익스피어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 부인이 남편을 ‘주인남’이라고 호칭하는 번역은 현대 독자들에게 엄청난 이질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목표어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데스테모나가 남편에게 ‘네, 장군’하고 대답하는 여성주의 번역도 마찬가지로 어색하다. 이는 역으로 대상 텍스트가 탄생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번역은 아내의 정절에 대한 집착이 아내의 살인을 부를 수도 있는 가부장 문화를 전달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4. 나가는 글

번역 연구에 문화 개념을 도입한 선구적 학자인 르페브르(Andre Lefevre)와 바스넷(Susan Bassnett-MaGuire)은 문학 작품 번역의 문제점으로 이데올로기, 시학, 담론, 언어를 들었다. 그리고 이 중 번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1998.3). 번역이란 “진공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진공 속에서 수용되는 것도 아니다”는 그들의 주장은 번역에 담긴 번역가의 정체성과 그 번역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진공”(vacuum)이란 번역가의 정체성이 배제된 상태를, 후자의 “진공”이란 목표어 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남녀 번역가의 번역 작품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런 주장이 대체로 타당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번역가들은 다분히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번역을 하고 있으며 좀더 강한 여성 비하적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 번역가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들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여성 인물에 대한 호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적 번역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 A의 번역에서 강한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작용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여성 A의 번역에서는 젠더 정치성이 상당히 반영된 페미니즘 번역이란 인상을 받았다.

여성주의 운동과 함께 번역에 있어서도 성경을 비롯한 기존 번역 정전들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들이 가해졌다. 나아가 이런 번역을 전복시키는 여성주의 번역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속속 실천적 번역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가부장적이든 여성주의적이든 성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된 번역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남성 A의 경우와 같은 가부장적 번역도 여성 A와 같은 너무 적극적인 여성주의 번역도 독자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성(性)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번역은 원전의 의도나 문맥의 의미에서 벗어난 번역 행위가 될 수 있다.

번역은 원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번역가가 왜곡하고 조작하는 정도에 따라 원전의 모습과 달라지기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너무 정치적이고 의식적인 원전의 개작은 조작을 암시하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르페브르의 의견(알바레즈 & 비달 17에서 재인용)에 좀더 공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차 텍스트

Shakespeare, William. *Othello*. M.R. Ridley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2.

권오숙 역, 『오셀로』, 경기: 열린책들, 2011.

김미예 역, 『오셀로』,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김우탁 역, 『오셀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김재남 역, 『로미오와 줄리엣/줄리어스 시저/오셀로/리어 왕』, 서울: 을유문화사, 1991.

신정옥 역, 『오셀로』, 서울: 전예원, 1989.

조광순 역, 『오셀로』, 서울: 동인, 2009.

2차 텍스트

김동미, 『영한 번역의 ‘여성 문체’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정덕, 『언어와 인간』, 영남서원, 1990.

더글러스 로빈슨. 『번역과 제국』. 정혜옥 역, 동문선 2002.

로만 알바레즈 & M. 칼멘-아프리카 비달 엮음. 『번역, 권력, 전복』. 윤일환 역, 동인, 2007.

삐에르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역, 새물결, 1997.

테레사 현, 『번역과 창작: 한국 근대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김혜동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Bassnett-MaGuire Susan, "Still trapped in the labyrinth: Further reflections on translation and theatre", In Bassnett-MaGuire, Susan and Lefevere, Andre, eds.,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90-108.

- Kremer, Marion, *Person Reference and Gender in Translation: a Contrastive Investigation of English and Germa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7.
- Santaemilia, Jos'e. *Gender, Sex and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2005.
- Simon, Sherry,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6.
- Von Flotow, Luise.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on in the 'Era of Feminism'*, Manchester: St. Jerome, 1997.

Abstract

Gender and Translation Difference: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Translation Texts of Shakespeare's *Othello*

Kweon, Osook

Nowadays, translator's identity including gen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ranslation. After the women's movement has problematized language, many academic criticism has tried to reveal the ideological aspects of canons translated by patriarchal male translators and to recover lost female translators. In this study, Korean versions of Shakespeare's *Othello* translated by three male translators and three female translators are compared, which was obviously reached to an conclusion that gender difference brings about the different translation.

As far, language, a man-made artifact, was made to reflect only men's ideas. In general male translators stucked to the original meaning of such a patriarchal language and still conserve male bias and patriarchal authority in their translation. While, women translators have tried to get rid of oppressive aspects from the language and to provide modern readers with new concepts of gender. They have tried to find and use new expressions to get beyond the conventions of patriarchal language in Shakespeare's texts.

However, what is a good translation becomes a little sophisticated problem when we think the ethics of translation. Translators who are too politicized may take offence at the source

text. Translators should try to avoid severe intervention for their ideology and to be as neutral politically as they can even when they try a new translation for the new readers. Even though we cannot erase our gender identity completely in translation, we should pay attention not to pursue the conscious gender-biased translation. It has the danger to pervert the meaning or message of the source text to the target readers.

Key words: gender, translation, translator's identity, patriarchal language,
feminist translation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